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isabled's Quality of Life: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Disabled People

전명숙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yeong-Sook Jeon(msjun0603@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 연도(2016)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의 성별과 연령, 신체적 요인의 장애 등급과 장애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취업 장애인 | 미취업 장애인 | 삶의 질 | 장애인고용패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much demographic and disability-relate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that employed and unemployed disabled people, and determin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ose factors between the two disabled group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tilized 1st-year(2016) data from the 2nd wave of the Korean Panel Study on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mployment is a critical factor that influences the disabled's quality of life. Besides, there are some financial, socio-relational and physical factors on which that quality is heavily dependent. Second, employed disabled people's quality of life is even more influenced by financial factors, socio-relational factors and health state than demographic factors. Third, unemployed disabled people's quality of lif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me demographic factors like gender and age and some physical factors like disability grade and disability period as well as by factors found influencing employed disabled people's quality of life. Thus, the two disabled group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which factors influence their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made suggestions for the disabled's better quality of life.

■ keyword : | Employed Disabled People | Unemployed Disabled People | Quality of Life | Korean Panel Study on Employment for the Disabled |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안녕감(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자긍심(self-esteem)과 같이 다양한 관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1]. 따라서 삶의 질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행복감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2]. 즉 삶과 관련된 모든 요인에 의해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요인으로는 의식주에서부터 건강, 소득, 노동, 교육, 환경 등이 있으며, 주관적 요인으로는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부재 등이 있으며 [3],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만족, 행복, 심리적 안녕감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4].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신체상의 이미지가 낮을 수 있으며 [5], 사회적으로도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삶의 질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2].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6][7]. 오세란[6]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과 고용조건 등이 열악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8], 사회 심리적 요인[9][10], 신체적 요인[11], 환경적 요인[12], 사회관계 요인[13][14]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 성별[10][15], 장애정도 및 유형[16][17]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특정요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으나, 삶의 질은 삶과 관

련된 물리적·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3].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8][9][13]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따라 삶의 질의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2]. 이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자긍심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18],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생활의 여유와 여가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을 구분하여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취업여부는 장애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삶의 질은 행복한 삶의 척도이며, 이는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다[1].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여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다[20].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삶의 질은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13]. 그러나 아직까지 신체적 부자유로 인한 활동의 제약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적인 시선으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그들의 삶의 질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학력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12][21][22].

경제적 요인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소득[23][24], 취업여부[24][25]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에서 소득은 장애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좌우하는 요인이고, 장애인 가구의 취업은 직장의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26].

사회관계 요인은 장애인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참여 활동의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같은 긍정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12][23][27].

신체적 요인은 장애인들의 신체적·건강수준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수준과 관련된 요인으로 장애

인들의 사회활동이나 심리적 불안감,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 등과 연관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으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의 취업과 삶의 질

개인에게 있어 취업은 소득을 통한 경제수준의 향상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회참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31]. 특히 장애인에 있어서 취업은 그들의 삶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주거선택, 이동, 자유시간의 결정과 같은 자율성과 의료기관의 방문, 교통편 이용, 지인과의 교류와 같은 접근권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된다[6]. 또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32]. 그 결과 장애인의 취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33], 직업 유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은 경제적 여건의 향상 및 동료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자아성취감의 향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7][25].

이와 같이 장애인의 취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정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제약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취업 장애인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들의 긍정적 심리를 자극하여 자신의 장애정도나 유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의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31][34]에서는 취업 장애인은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나 장애수용 정도가 더 긍정적이며, 삶의 만족에 장애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하였다.

이상의 맥락에서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모형

1.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Disabled, 이하 PSED로 표기)는 2008년 시작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본 조사는 8차 조사이다. PSED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기초통계를 정립하고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 패널 중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3,645명으로 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장애인은 1,846명(50.6%)으로 미취업 장애인의 1,799명(49.4) 보다 약간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이 65.3%로 여성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43.9세이며, 40대가 3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25.0%, 50대 20.9%, 20대 12.5%, 60대 11.0%의 순이었다. 배우자 유무에서 유배우자는 46.0%로 무배우자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은 평균 2,30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인 72.8%로 고졸이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6등급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5등급 18.5%, 3등급 17.4%, 4등급 13.7%, 2등급 12.5%, 1등급 8.1%의 순이었다.

1.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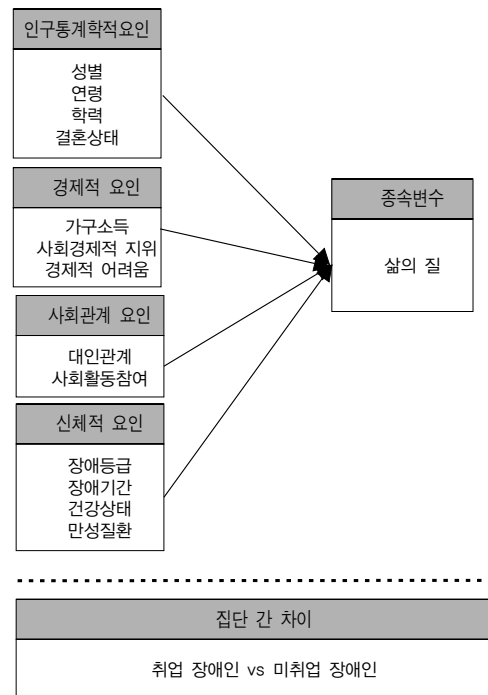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모형

분석모형에서 장애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삶의 질은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묻는 9개 문항 중 7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척도는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까지 측정하였으며, 분석에는

합산 값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로 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다. 학력은 고졸 또는 대졸이상을 고졸이상(1)으로 하고, 무학, 초졸, 중졸을 중졸이하(0)로,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1)와 무배우자(0)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취업유무와 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였다. 취업유무는 취업(1)과 미취업(0)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소득은 2015년 연간 가구총소득의 로그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1)부터 상층(4)까지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에 관한 7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합산한 값이 클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요인에서 대인관계정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관한 7문항을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합산한 값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정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참여활동은 공식·비공식적 사회단체나 모임 등에 참여하는 정도로 전혀 참여 못함(1)부터 많이 참여(4)까지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으며, 측정값이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요인에서 장애등급은 1급~6급까지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기간은 패널연도(2016)에서 최종 장애 등록년도를 차감한 값을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매우 좋지 않다(1)부터 매우 좋다(4)로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으며, 만성질환은 장애 외 만성질환유무로 있다(1)와 없다(0)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변수 및 척도

구분	변수명	측정문항	척도
종속 변수	삶의 질	가족관계, 친구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달 수입,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매우불만족(1)~매우만족(5)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응답자 성별	남성(1)여성(0)
	연령	응답자 연령	만 나이
	학력	최종학력	고졸이상(1) 중졸이하(0)
	배우자	유배우자, 무배우자	유(1), 무(0)
경제적 요인	취업유무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가구소득	2015년 가구총소득	로그값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1)~상층(4)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여가생활, 주거선택, 식생활, 공과금 납부, 의료, 채무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사회관계 요인	대인관계 정도	친구관계, 먼저 말걸기, 고민상담, 칭찬, 의사표현, 화내지 않기, 대화로 문제해결,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사회활동 참여	공식·비공식적 모임 등에 참여하는 정도	전혀 참여 못함(1)~많이 참여(4)
신체적 요인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1~6
	장애기간	장애등록기간	2016-장애등록연도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1)~매우 좋다(4)
	만성질환	장애 외 만성질환 유무	있다(1), 없다(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2.0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우선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취업여부에 따른 영향요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의 특성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특성비교

요인	항목	전체평균 N=3,645	취업 N=1,846	미취업 N=1,799	t
인구 통계 학적 요인	삶의 질	23.65	24.93	22.35	18.26***
	성별_남	.65	.75	.55	12.93***
	연령	43.93	43.32	44.56	-3.27***
	학력	.73	.82	.64	12.58***
	유배우자	.46	.59	.32	17.26***
경제 적 요인	가구소득	7.23	7.77	6.68	28.11***
	사회경제지위	1.67	1.86	1.48	18.19***
	경제적어려움	17.22	15.46	19.02	-17.93***
사회 관계	대인관계정도	18.79	20.37	17.17	22.34***
	사회활동참여	2.33	2.60	2.06	21.36***
신체 적 요인	장애등급	4.11	4.59	3.62	18.45***
	장애기간	12.15	12.00	12.30	-1.39
	건강상태	2.46	2.72	2.19	24.30***
	만성질환_유	.27	.21	.33	-8.55***

*p<.05, **p<.01, ***p<.001

삶의 질은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업 장애인은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남성이 많으며, 고졸이상의 학력 보유자와 유배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요인의 특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미취업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관계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참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요인에서는 장애등급은 취업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정도가 경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유

무에서도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장애기간은 취업여부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다양한 대인관계 및 사회참여활동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장애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과 장애기간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취업여부, 그리고 삶의 질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장애인의 삶의 질은 취업여부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 참여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관계수가 .5 이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290*	1													
3)	.023	.209*	1												
4)	-.144*	-.054*	-.054*	1											
5)	.186*	.204*	.128*	-.401*	1										
6)	.158*	.275*	-.016	.296*	.012	1									
7)	.210*	.422*	.060*	-.175*	.218*	.309*	1								
8)	.400*	.289*	.012	-.134*	.226*	.236*	.364*	1							
9)	-.368*	-.284*	-.013	.124*	-.181*	-.171*	-.381*	-.421*	1						
10)	.325*	.347*	.025	.057*	.171**	.273*	.242*	.277*	-.253*	1					
11)	.367*	.334*	.052*	-.051*	.204*	.232*	.248*	.284*	-.244*	.462*	1				
12)	.125*	.292*	.062*	.154*	-.067*	.278*	.190*	.199*	-.116	.350*	.269*	1			
13)	.006	-.023	.036*	.061*	-.094*	-.021	-.064*	.051*	-.134*	-.024	-.321*	1			
14)	.441*	.374*	.077*	-.271*	.254*	.148*	.315*	.309*	-.322*	.277*	.331*	.170*	.009	1	
15)	-.214*	-.144*	-.061*	.305*	-.194*	-.004*	-.103*	-.173*	.119*	.017	-.114	.021	-.034*	-.351*	1

*p<.05, **p<.01

1) 삶의 질, 2)취업여부_유, 3)성별_남, 4)연령, 5)학력_고졸이상, 6)결혼_유배우자, 7)가구소득, 8)사회경제적지위, 9)경제적어려움, 10)대인관계정도, 11)사회활동참여, 12)장애등급, 13)장애기간, 14)주관적건강상태, 15)만성질환_유.

3.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결과

3.1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장애인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질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1과, 독립변수에 취업여부를 추가한 모형2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회귀모형 1(p<.001)과 모형 2(p<.001)는 모두 유의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 1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변수들은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취업여부가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항목	모형1		모형2	
		B	t	B	t
상수	(상수)	18,622	26,947	19,141	26,872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_남	-.085	-.665	-.159	-1,223
	연령	-.009	-1,426	-.010	-1,509
	학력_고졸이상	-.019	-.121	-.039	-.251
	결혼_유배우자	.177	1,247	.145	1,020
경제적요인	가구소득	.282	5,078***	.322	5,641***
	사회경제적지위	1,320	12,091***	1,311	12,021***
	경제적 어려움	-.132	-11,778***	-.131	-11,635***
사회관계요인	대인관계정도	.117	7,395***	.111	6,985***
	사회활동참여	.831	9,343***	.809	9,077***
신체적요인	장애등급	-.090	-2,131*	-.107	-2,503*
	장애기간	.018	1,828	.016	1,655
	건강상태	1,513	14,656***	1,465	14,032***
	만성질환_유	-.568	-3,787***	-.550	-3,672***
취업여부				.437	2,956**
R		.346		.348	
ΔR(p)				0,002**(.003)	
F(p)		148,017***(.000)		138,361***(.000)	

*p<.05, **p<.01, ***p<.001

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질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

소득(p<.001)과 사회경제적 지위(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요인의 대인관계(p<.001)와 사회참여활동(p<.001)은 삶의 질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참여가 양호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적 요인에서는 장애기간을 제외한 장애등급(p<.05)과 만성질환유무(p<.001)는 삶의 질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정도가 양호하고, 만성질환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유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 2에서 취업유무(p<.01)는 삶의 질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은 경제 상태와 사회적 요인, 건강, 취업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3.2 취업여부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은 유의한(p<.001)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과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에서 가구소득(p<.05)과 사회경제적 지위(p<.001)는 정(+), 경제적 어려움(p<.001)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취업여부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항목	취업 장애인		미취업 장애인	
		B	t	B	t
상수	(상수)	17.666	15.078	20.181	20.239
인구통계학적요인	성별_남	.185	1.009	-.457	-2.410*
	연령	.002	.190	-.019	-1.982*
	학력_고졸이상	.171	.738	-.173	-.820
	결혼_유배우자	.033	.187	.180	.779
경제적요인	가구소득	.228	2.185*	.375	5.183***
	사회경제적지위	1.195	8.659***	1.432	8.291***
	경제적어려움	-.117	-7.923***	-.138	-8.091***
사회관계요인	대인관계정도	.107	4.581***	.123	5.496***
	사회활동참여	.814	6.855***	.815	6.104***
신체적요인	장애등급	-.098	-1.703	-.140	-2.204*
	장애기간	-.004	-.268	.031	2.153*
	건강상태	1.687	11.046***	1.275	8.756***
	만성질환_유	-.638	-3.030**	-.459	-2.140*
R		.291		.293	
F(p)		57.711***(.000)		57.027***(.000)	

*p<.05, **p<.01, ***p<.001

이는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사회관계 요인에서는 대인관계(p<.001)와 사회참여활동(p<.001)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양호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적 요인에서는 건강상태(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만성질환(p<.01)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등급 및 장애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 장애인은 장애특성 보다는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은 유의한(p<.001)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성별(p<.05)과 연령(p<.05)이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미취업 장애인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취업 장애인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경제적 요인에서 가구소득

(p<.001)과 사회경제적 지위(p<.001)는 정(+), 경제적 어려움(p<.001)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취업 장애인과 동일한 결과이다. 사회관계 요인에서는 대인관계(p<.001)와 사회참여활동(p<.001)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양호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취업 장애인과 동일한 결과이다. 신체적 요인에서는 장애등급은 부(-), 장애기간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하고, 장애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취업 장애인과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건강상태(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만성질환(p<.01)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질환이 없고 건강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의미로 취업 장애인과 동일한 결과이다.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 영향요인의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장애기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낮고, 남성일수록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인하여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장애기간이 길수록 장애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사회관계 위축이 작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취업여부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1차 연도(2016) 자료를 바탕으로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장애인 3,64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삶의 질은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는 취업 장애인이 남자 비율이 높았으며, 더 높은 학력을 보였으나,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요인에서도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여 경제적 어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관계 요인에서도 대인관계나 사회참여활동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강수준도 양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13][33]와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한 박자경[31]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취업여부가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여부가 장애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취업이 단순한 소득증대의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형성과 긍정적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선행연구[12][31]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장애인의 삶의 질에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관계요인, 신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은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제적 요인과 대인 및 사회활동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 성별이나 연령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는 그들이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26]와 건강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요인이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12]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에 비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장애등급 및 장애기간과 같은 장애관련 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으로 취업 장애인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관계나 활동, 자신의 건강한 삶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27]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장애인의 경우 일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장애로 인한 부정적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이를 통한 소득의 증가는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일자리가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를 위한 소득과 학력의 영향력이 삶의 질에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의 제약이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체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장애유형이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취업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정책과 아울러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적 상담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는 자신의 가구를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5]. 실제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이하 비율은 13.29%, 비장애인 가구 7.27%로 약 1.8배의 차

이를 보이며,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 60% 이하 비율도 장애인가구 42.92%, 비장애인가구 23.13%로 약 1.8배의 차이를 보여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36].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활동지원비, 보조기구지원비, 출산비용 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소득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소득지원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연령이나 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애인 1인당 최소 22만원(18~64세의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서 최대 48만원(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의 경우)으로 책정되어 있다[37]. 그러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 예를 들어 병원치료, 휠체어 등과 같은 보조기구 구입, 주거시설의 개조, 전문서비스 이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일 년을 기준으로 할 때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추가비용이 지출된다[36]. 따라서 장애인 가구에서 소요되는 각종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인상하고 소득을 지원함에 연령 및 소득수준과 함께 장애중증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특히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사회활동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연금을 근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활동 강화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의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층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취업 장애인의 일자리 유지와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고령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정책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38]. 이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여성고령자일 경우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의 취업수준은 더욱 낮게 형성되고 있다[39]. 따라서 고령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여성고령자나 중증장애를 가진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장애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와 연계하여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장애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들이 장애인들의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결과에 의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장애 특성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나 장애수용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다룬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 시켰고, 향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의 개인특성을 감안한 방안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이계승,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 pp.375-402, 2014.

- [2] 김승호, 박재국, 김은라,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삶의 질,”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4호, pp.173-195, 2016.
- [3] K. H. Schuessler and G. Fisher,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1, pp.129-149, 1985.
- [4] S. E. Iso-Ahola,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A :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980.
- [5] J. Dziura,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Identity Change After the Acquisition of a Physical Disability in Adulthood: A Critical Analysis of an Autobiography,” *Gallaudet Chronicles of Psychology*, Vol.27, pp.31-42, 2015.
- [6] 오세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비교연구,” 재활복지, 제10권, pp.38-62, 2006.
- [7] 이채식, 김명식,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3권, 제1호, pp.327-356, 2013.
- [8] 김성원,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9] 남희은,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자원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Vol.30, pp.117-143, 2015.
- [10] 이동호, 빈성오, “노인들의 질환별 유병여부와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216-224, 2011.
- [11] 배상열, 고대식, 노지숙, 이병훈, 박형수, 박종, “한국 노인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호, 제10권, pp.255-266, 2010.
- [12] 백은령,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13] 정일교, “사회적 지지가 뇌성마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9권, 제4호, pp.61-81, 2015.
- [14] 황보옥, 박영준, “여성지체장애인의 사회적지지, 사회통합 및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연구,” 재활복지, 제14권, 제3호, pp.299-324, 2010.
- [15] 김희국,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편견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pp.63-84, 2010.
- [16] 김동화, 김미옥,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2호, pp.209-233, 2015.
- [17] 박능후, 구만서, “일상생활능력과 일상생활환경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 접근성과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 제19권, pp.79-115, 2016.
- [18] 박경수, 이석호,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탈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4호, pp.89-110, 2015.
- [19] 송섭규, 이훈,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만족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6호, pp.261-280, 2015.
- [20] C. D. Ryff and C. L.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149-152, 1995.
- [21] K. S. Clayton, and R. A. Chubon, “Factors associated and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11, pp.123-134, 1994.
- [22] M. Kreuter, M. Sullivan, A. Dahilof, G. and A. Siosteen, “Partner relationships, functioning, mood and global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spinal core injury and traumatic brain injury,” *Spinal Cord*, Vol.36, No.4, pp.252-261, 1998.
- [23] 노승현, 황환, “자기선택과 지역사회통합의 기회가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233-257, 2010.
- [24] C. Banfalvy, *Quality of life and unemployment :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people with disability in hungary*, Cambridge Brookline Books, 1994.

[25] 김한성, 이유신,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 유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4호, pp.146-171, 2014.

[26] 김범규, 남용현, “장애인의 취업상태 변화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 가구균등화 소득을 중심으로,” 제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pp.313-377, 2013.

[27] S. P. Segal and V. Aviram,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 based sheltered care : A study of community care and social integration*, NY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78.

[28] 서득문,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9] L. Benson, *Image, heroes and self-perceptions*, N. J: Englewood Cliffs, 1974.

[30] 이영숙, 김건엽, 박기수, 손재희, 이종영, “대구지역 재가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의학회지, 제31권, 제3호, pp.503-515, 1998.

[31] 박자경,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수시과제보고서, pp.1-31, 2009.

[32] 이병화, 이송희,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 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2호, pp.227-257, 2016.

[33] 이달엽, “장애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패널 중심의 세 집단 비교,”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3호, pp.99-122, 2014.

[34] 조경은, 강도명, “지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 특성 관련 변인분석,” 지적장애연구, 제14권, 제1호, pp.263-285, 2012.

[35] 권오숙,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과 가족레질리언스와의 관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매개효과 연구*, 중앙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6] 임재현, *장애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결정요인 연구 : 비장애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7]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정책홍보자료, 2015.

[38] 김용탁, *고령장애인의 고용촉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5.

[39] 노승현,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 pp.51-82, 2012.

저 자 소 개

전 명 숙(Myeong-Sook Jeon)

정희원



- 2014년 8월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장애인, 삶의 질, 취업여부, 장애인복지